논리연구 16-3(2013) pp. 381-406

크립케의 진리론은 복수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가?[*] [**]

송 하 석

【국문요약】 이 논문은 크립케 스타일의 초완전성 견해가 거짓말쟁이 역설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초완전성 견해에 따르면, 참도 거짓도 아닌 문장이 있고, 거짓말쟁이 문장이 바로 그런 문장이다. 크립케의 초완전성 견해는 복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최근 모들린은 토대론적 의미론을 통해서 복수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초완전성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의 목적은 모들린의 견해를 포함해서 초완전성 견해는 복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진리와 관한 일상적인 직관과 부합되지 않음을 논증하고, 모들린의 견해는 복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단순한 미봉적 제안일 뿐임을 주장한다.

【주요어】 거짓말쟁이 역설, 복수의 문제, 크립케, 초완전성 견해, 모들린, 토대론적 의미론

접수일자: 2013.07.24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13.09.02 게재확정일: 2013.09.16

* 본 연구는 2012년도 아주대학교 일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의 초고는 2013년 2월 한국 논리학회 동계 발표회에서 발표되었는데 그때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과, 비판적인 지적을 해주신 『논리연구』의 세 분의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1. 들어가는 말

거짓말쟁이 문장으로 알려진 다음 문장(λ)은, 진리값에 대한 배중률(이가의 원리, principle of bivalence)을 포함하는 고전 논리학과 타르스키(A. Tarski)의 T-도식을 받아들이면 역설을 낳는다.

(λ) 이 문장은 거짓이다(This sentence is false).

(λ)를 참이라고 가정하자. (λ)가 지시하는 것은 'λ가 참이 아니다' 즉 $\neg T(\langle\lambda\rangle)$이다. (여기서 '$\langle\lambda\rangle$'는 문장 (λ)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T(\langle\lambda\rangle)$는 $T(\neg T(\langle\lambda\rangle))$이다. T-제거를 적용하면 $T(\neg T(\langle\lambda\rangle))$으로부터 $\neg T(\langle\lambda\rangle)$을 얻을 수 있다. 즉 (λ)가 참이라는 가정($T(\langle\lambda\rangle)$으로부터 $\neg T(\langle\lambda\rangle)$이 연역되어, 귀류법에 의해서 $\neg T(\langle\lambda\rangle)$이다. 이제 (λ)를 거짓, 즉 $\neg T(\langle\lambda\rangle)$라고 가정하자. 여기에 T-도입을 적용하면 $T(\neg T(\langle\lambda\rangle))$이 얻어진다. 그런데 (λ)가 지시하는 것은 $\neg T(\langle\lambda\rangle)$이므로 $T(\langle\lambda\rangle)$가 얻어진다. (λ)가 거짓이라는 가정($\neg T(\langle\lambda\rangle)$으로부터 $T(\langle\lambda\rangle)$이 연역되어, 귀류법에 의해서 $T(\langle\lambda\rangle)$이다. 결국 모순이 발생한다.

거짓말쟁이 역설의 시작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타르스키가 의미론적 진리개념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었지만, 그 유형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형은 일상언어의 완결성, 의미론적 폐쇄성(semantically closedness)이 역설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의미론적으로 열린 형식 언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런 견해의 대표자는 타르스키이다. 두 번째 유형의 해결책은 초일관성(para-consistency)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다. 이런

해결책은 흔히 양진주의(dialetheism)라고 불리는데 이 견해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는 프리스트(G. Priest)와 볼(JC. Beall) 등이다. 세 번째 유형의 해결책은 어떤 언어의 모든 문장이 모두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언어의 초완전성(para-completeness)을 주장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의 대표자는 크립케이다.

크립케의 초완전성 견해에 따르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 즉 이가의 원리를 포기하고 참도 거짓도 아닌 의미론적인 값, 즉 제 3의 값을 갖는 문장이 있고 거짓말쟁이 문장이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참, 거짓으로 진리값이 결정되지 않는 문장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이론은 초완전성 이론, 또는 진리값 틈새 이론(Gap Theory)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값의 틈새(gap)를 전제함으로써 거짓말쟁이의 역설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복수의 문제(revenge problem)[1]에 부딪힌다는 비판은 크립케 이전부터 제기되었다. 즉 다음 문장을 생각해보자.

(λλ)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This sentence is not true).

(λλ)를 참이라고 가정하면, (λλ)가 가리키는 것은 $\neg T(\langle \lambda\lambda \rangle)$이므로 (λλ)는 참이 아니게 된다. 또 (λλ)를 거짓이나 제 3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λλ)는 참이 아니므로, (λλ)는 참이 된다. 따라서 (λλ)를 참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아니라는 결론이, (λλ)를 참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참이라는 결론이 추론되어 역설이 발생한다. 과연 이가의 원리를 포기함으로써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하려는 크립케 식의 초완전성 견해는 복수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가?

---

1) 이러한 역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반 프라센(B. Van Fraassen)이다. 그는 이 문제를 강화된 거짓말쟁이 역설(strengthened liar paradox)의 문제라고 불렀다. Van Fraassen (1968) 참고.

1975년 크립케가 “진리론의 윤곽(Outline of A Theory of Truth)”을 발표했을 때, 많은 철학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론이 여전히 복수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최근 복수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초완전성 견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여러 철학자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크립케 식의 초완전성 견해가 복수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크립케의 진리론을 자세히 살펴보고 크립케의 진리론이 복수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2절), 최근 초완전성 견해를 수정 발전시켜 복수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크립케 식의 초완전성 견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들린(T. Maudlin)의 견해를 소개하고 비판할 것이다(3절). 결론적으로 모들린의 견해는 복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미봉적(*ad hoc*) 제안일 뿐이고 오히려 진리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과 부합하지 않는 더 많은 문제를 낳음을 논증할 것이다.[2)]

2. 크립케의 진리론

크립케는 타르스키의 위계적 진리론을 비판하면서, 의미론적 역설에 대한 보다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진리 술어의 형식적 올바름(formal correctness)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

2) 크립케와 모들린이 복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크립케 식의 초완전성 견해가 복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드(H. Field)와 같은 철학자도 크립케 식의 초완전성 견해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드의 초완전성 견해는 Field (2008)에 잘 제시되어 있다. 필자는 다른 논문에서 필드의 진리론을 다룰 계획이지만 필드의 견해도 역시 복수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타르스키의 위계적 진리론에 대한 크립케의 비판은 의미론적 역설이 단순히 불가해한 철학적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문제라는 통찰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크립케는 의미론적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를 거짓말쟁이 문장과 같은 특정한 문장의 구문론이나 의미론이 갖는 고유한 어떤 성질 때문이 아니라, 경험적 사실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참이나 거짓에 대한 일상적 주장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 아마도 대부분은 경험적 사실이 극도로 불리하다면, 역설적 특징을 쉽게 드러내 보인다"고 말한다.[3] 워터게이트에 대한 존스와 닉슨의 다음 대화를 생각해 보자. 존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닉슨이 워터게이트에 대하여 한 말 중 대부분은 거짓이다.

워터게이트에 대한 닉슨의 주장 중에 다음 문장을 제외하고는 반 정도가 참이고 나머지 반 정도가 거짓이라고 하자.

(2) 워터게이트에 대해서 존스가 한 말은 모두 참이다.

존스의 진술 (1)과 닉슨의 진술 (2)는 함께 고려될 때 역설을 낳는다. 여기서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1)과 (2)라는 문장의 고유한 어떤 특성 때문이 아니라, 존스가 (1)을, 그리고 닉슨이 (2)를 말했는데 (2)를 제외한 닉슨의 주장의 반 정도가 참이라는 경험적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크립케는 우리가 진리 개념을 포함하는 진술을 할 때, 경험적 사실 때문에 그 진술들이 역설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Kripke (1975), p. 54.

크립케는 진리 술어의 층위를 나누어 역설을 해결하고자 하는 타르스키의 제안에 반대하고, 진리 술어의 일의성(univocality)을 유지하면서 의미론적 역설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그는 어떤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는 진리값을 갖지 않지만 동일한 문장이 다른 상황에서는 진리값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그는 진리 술어가 완전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타르스키의 생각, 즉 모든 옳은 형식의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의 진리값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크립케는 이가의 원리를 거부하고 클린의 K3 논리학을 받아들인다.[4)]

그러나 크립케의 진리론은 단순히 클린의 K3 논리학을 받아들이는 3치 논리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그의 이론에는 부분적으로 T-도식에 대한 타르스키적인 제한의 정신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크립케는 이가의 원리에 대한 거부와 T-도식에 대한 제한을 결합하여, 참으로 진술될 수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고정된 외연을 갖는 단일한 진리술어를 포함하는 언어를 산출하고자 한다. 여기서 크립케는 기반을 가진(grounded) 문장[5)]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도입한다. '기반을 가짐'이라는 개념은 일상적인 문장이 어떻게 진

4) 크립케가 취하는 클린의 K3에 따라 진리값을 부여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A‖는 A의 진리값을 나타낸다고 하자. 그러면 ‖A‖는 {1. 1/2, 0} 중 하나이다. 그리고 나머지 복합명제의 진리값은 다음과 같다.

$\|A \wedge B\| = \min\{\|A\|, \|B\|\}$

$\|A \vee B\| = \max\{\|A\|, \|B\|\}$

$\|\neg A\| = 1 - \|A\|$

$\|A \supset B\| = \|\neg A \vee B\| = \max\{1 - \|A\|, \|B\|\}$

$\|\forall xA\| = \min\{\|A(x/c)\|\}$

$\|\exists xA\| = \max\{\|A(x/c)\|\}$

5) 심사위원 중 한 분이 'grounded'를 '근거 있는'으로 번역할 경우 '증거나 논거를 가지고 있는'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반을 가진'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여 'grounded'를 '기반을 가진'으로 번역하였다.

리값을 부여받고 병리적인 문장이 어떻게 진리값을 부여받을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 그는 관련된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 문장이 기반을 가진 문장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어떤 문장이 역설적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험적 사실이 하는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크립케는 기반을 가진 문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일반적으로 어떤 문장 집합 C에 속하는 문장들에 대해서 그 문장[모두, 대부분, 일부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의 진리값은 집합 C에 속하는 문장들의 진리값을 확인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이 문장들 자체가 진리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의 진리값은 차례로 다른 문장을 살펴봄으로써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진리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문장에서 끝이 난다면, 그래서 원래의 진술의 진리값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그 원래의 문장은 "기반을 가진" 문장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반을 갖지 않는" 문장이라고 한다.[6]

p_i는 p_{i+1}이 참이라고 말하는 문장이라고 하고, 무한한 문장 계열 $\{p_i\}$를 생각해보자. 'p_1'은 'p_2'가 참이라고 말하고, 'p_2'는 'p_3'가 참이라고 말할 것이고, 이러한 계열은 무한히 계속될 것이다. p_i의 진리값은 p_{i+1}의 진리값이 결정될 때, 결정된다. 그런데 p_{i+1}의 진리값은 진리값이 결정되지 않은 p_{i+2}의 진리값에 의존하기 때문에 진리값이 부여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계열의 문장들은 기반을 갖지 않는는 문장들이고 진리값을 부여할 수 없다.

"눈은 하얗다"는 문장을 (3)이라고 하자. 그런데 2013년 1월 1일자 대한신문에 문장 (3)이 쓰여 있다고 하자. '(3)은 참이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013년 1월 1일자 대한신문에 쓰인 문장 중에 참인 문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 우리는 '2013년 1월 1일자 대한신문에 실린 어떤 문장은 참이다'는 문장도

6) Kripke (1975), p. 57.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 개념을 포함하는 진술에 대하여 하나씩 진리값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진술, 즉 모든 기반을 가진 진술에 대하여 진리값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무한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모든 기반을 가진 문장에 진리값을 부여하게 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새로운 문장에 더 이상 진리값을 부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크립케는 바로 그 시점을 최소 고정점(minimal fixed point)이라고 부른다. 요컨대 어떤 문장이 최소 고정점에서 진리값이 할당된다면 그 문장은 기반을 가진 문장이고, 최소 고정점에서 진리값이 할당되지 않는다면 그 문장은 기반을 갖지 않는 문장이다. 그런데 기반을 갖지 않는 문장 중에는 최소 고정점이 아닌 어떤 고정점에서는 진리값이 할당될 수도 있다.

이제 기반을 가짐 개념과 고정점에 대한 크립케의 형식적인 설명을 살펴보자. FL을 유한한 원초적 술어를 갖는 해석된 일계 언어(first-order language)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FL의 변항의 범위가 되는 영역을 D라고 하자.[7] 원초적인 n항 술어는 D에서 n항 관계로 해석된다. 그리고 FL의 구문론은 FL의 언어로 모두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FL의 모든 술어에 대해서, 그 술어를 만족시키는 대상들의 집합인 그 술어의 외연(extension)과 그 술어의 부정을 만족하는 대상들의 집합인 그 술어의 반외연(anti-extension)이 결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주어진 술어의 외연에 속하는 것과 반외연에 속하는 것은 논의의 영역 D 전체를 포괄하고, 모든 경우에 한 술어의 외연과 반외연은 서로 배타적이다. 이제 FL에, 그것의 해석이 부분적으로만 정의될 수 있는 일항술어 T를 부가하여 L로 확장해 보자.[8] 즉 S_1은 T의 외연이고 S_2는 T의 반외연이라고 할 때, T의

7) 여기서 D는 공집합일 가능성은 배제한다.

8) 어떤 1항술어 F의 외연과 반외연의 집합은 D의 진부분집합이고, 또한 F의 외연과 반외연의 집합이 D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

해석은 부분집합 (S_1, S_2)에 의해서 주어지고, S_1과 S_2의 모든 집합의 합집합의 밖에서는 결정되지 않는다. 이제 L(S_1, S_2)를 (S_1, S_2)에 의해서 T를 해석함으로써 얻어진 L의 해석이라고 하자. 그래서 T를 제외한 모든 술어는 L에서 해석되는 반면, T는 L(S_1, S_2)에서 해석된다. S_1'를 L(S_1, S_2)의 참인 문장의 집합이라고 하고, S_2'를 L(S_1, S_2)의 문장이 아니거나 거짓인 문장의 집합이라고 하자. T가 L 자체에 대해서 해석되기 위해서는 S_1은 S_1'와 동치이어야 하고, S_2는 S_2'과 동치이어야 한다. T(S_1)과 $\neg$T(S_2)가 보다 상위의 언어에서도 보존되기 때문에 순서쌍 (S_1, S_2)는 고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론적 평가 과정을 계속해도 새로 참이 되거나 새롭게 거짓이 되는 문장을 얻을 수 없다.

크립케는 우리는 고정점을 “일종의 언어의 위계(a certain hierarchy of language)를 고려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9] L_0를 T가 전혀 정의되지 않은 언어라고 하자. 그러면 L_0는 L(φ, φ)로 정의된다. L_i = L(S_1, S_2)이면, S_1'이 L_i의 참인 문장의 집합이고, S_2'이 L_i의 문장이 아니거나 L_i의 거짓인 문장의 집합일 경우 L_{i+1} = L(S_1', S_2')이다. 여기서 크립케는 S_1이 S_1*의 부분집합이고 S_2는 S_2*의 부분집합이라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 (S_1*, S_2*)은 (S_1, S_2)의 확장이라는 흥미로운 점을 지적한다. 그것은 “만약 T가 (S_1*, S_2*)로 해석된다면, 그 해석은 (S_1, S_2)가 정의되는 모든 경우에서 (S_1, S_2)에 의한 해석과 일치하고, 유일한 차이는 (S_1*, S_2*)에 의한 해석은 T가 (S_1, S_2)에 의해서 해석될 때 정의되지 않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T가 정의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10]다시 말해서 임의의 i에 대해서, L_{i+1}에서 T의 해석은 L_i에서 T의 해석을 확장한 것이고, 따라서 i가 커짐

우에만, F의 해석이 부분적으로(partially)만 정의되어 있다고 말한다.

9) Kripke (1975), p. 67.

10) Kripke (1975), p. 68.

에 따라 T의 외연과 반외연도 증가하게 된다. 즉 i가 커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진술이 진리값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한 과정이 과연 무한히 계속될 것인지, 궁극적으로 멈출 것인지이다. 크립케는 어떤 지점에서 그 과정은 멈춘다고 대답한다. 그는 i의 단계에서의 (S_1, S_2)가 그보다 한 단계 위인 i+1의 단계에서의 (S_1, S_2)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경우에 i 단계를 하나의 고정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L_i에서 어떤 문장에 부여된 진리값은 임의의 고정점에서도 동일한 진리값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i를 최소 고정점이라고 부른다.

이상의 크립케의 설명을 단순화된 예를 통해서 설명해 보자. 매우 단순한 언어 L_0을 가정하고, L_0의 영역을 D라고 하자. 여기에는 단지 13개의 문장(①~⑬)만 있고 두 개의 언어 외적 대상, 잔디와 눈만 존재한다.

D = {잔디, 눈, ①~⑬}[11)]

I_0를 L_0의 해석이라고 하자. I_0는 D의 대상 집합을 각각의 술어에 부가하고 나머지는 L_0의 술어의 반외연이다. 즉,

I_0(하얗다) = {눈}

11) D에 포함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① '눈은 하얗다.' ② '잔디는 녹색이다.' ③ '눈은 녹색이다.' ④ '"눈은 하얗다"는 문장이 2013년 1월 1일자 대한신문에 쓰여 있다.' ⑤ '"눈은 하얗다"는 참이다.' ⑥ '"눈은 하얗다"는 거짓이다.' ⑦ '"눈은 녹색이다"는 참이다.' ⑧ '"눈은 녹색이다"는 거짓이다.' ⑨ '"눈은 하얗다"는 문장이 2013년 1월 1일자 대한신문에 쓰여 있고, 그 문장은 참이다.' ⑩ '2013년 1월 1일자 대한신문에 쓰인 것 중 어떤 것은 참이다.' ⑪ '"2013년 1월 1일자 대한신문에 쓰인 것 중 어떤 것은 참이다"는 참이다.' ⑫ '이 문장은 참이다.' ⑬ '이 문장은 거짓이다.

I_0(하얗지 않다) = {잔디}
I_0(녹색이다) = {잔디}
I_0(녹색이 아니다) = {눈}
I_0(2013년 1월 1일자 대한신문에 쓰이다) = {'눈은 하얗다'}

그런데 L_0에는 진리술어가 전혀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I_0(참이다) = ϕ
I_0(거짓이다) = ϕ

이제 다음 단계의 해석된 언어 L_1과 그것의 해석 I_1을 생각해 보자. I_1은 I_0에 의해서 '참이다'를 해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I_1(참이다) = { ①, ②, ④ }
I_1(거짓이다) = { ③ }

L_1에서 ①, ②, ④는 참인 문장이고, ③은 거짓인 문장이다. ⑤와 ⑫처럼 원자문장 중에도 어떤 것은 L_1에서 진리값을 부여받지 못한다. 어떤 문장의 주어가 I_0에 의해서 그 문장의 술어로 부가된 문장들만 L_1에서 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⑤의 주어가 I_1에 의해서 '참이다'는 술어에 부가되기 때문에 L_1보다 더 높은 단계의 언어에서 그 문장은 진리값을 가질 수 있다. 반면에 ⑫의 주어는 그 문장 자체이고 이는 I_1에서 진리값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L_1보다 높은 단계의 언어에서 진리값을 가질 수 없다. 결국 ⑫와 ⑬처럼 자신에 대해서 참 또는 거짓을 서술하는 자기지시적 문장은 어떤 단계의 언어에서도 진리값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이제 L_2를 구성해 보자. L_2의 해석 I_2는 어떤 문장의 주어가 I_1에 의해서

그 문장의 술어로 부가된 문장을 참으로 갖는다. 즉,

I_2(참이다) = { ①, ②, ④, ⑤, ⑧ }
I_2(거짓이다) = { ③, ⑥, ⑦ }

다음 단계의 해석된 언어, L_3는 진리술어를 논리적 연결사와 양화사를 포함하는 복합문장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연언문장의 연언지가 모두 참일 경우 그 연언문장도 참이므로, I_i(참이다)의 요소들로 구성된 연언문장은 I_{i+1}에서 참이 된다.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양화된 문장, '$(\exists x)A$'은 그 문장의 변항에 대입되어 A가 I_i에서 참으로 만드는 요소가 있을 경우 그 양화문장은 I_{i+1}에서 참이다. 따라서

I_3(참이다) = { ①, ②, ④, ⑤, ⑧, ⑨, ⑩ }
I_3(거짓이다) = { ③, ⑥, ⑦ }

그리고 ⑩이 I_3에 의해서 참이 되었기 때문에, ⑩ 자체를 주어로 갖는 ⑪은 I_4에서 참이 될 것이다. 결국 다음이 얻어진다.

I_4(참이다) = { ①, ②, ④, ⑤, ⑧, ⑨, ⑩, ⑪ }
I_4(거짓이다) = { ③, ⑥, ⑦ }

⑫와 ⑬은 I_4에서 진리값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문장들은 I_4(거짓이다)에 속하지도 않고 그 문장들의 주어는 그 문장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도 진리값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 둘을 제외한 D에 속한 모든 문장은 L_4에서 진리값이 결정되었고 ⑫와 ⑬은 더 높은 단계에서도 진리값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L4를 최

소 고정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최소 고정점에서 진리값을 부여받지 못하는 문장을 크립케는 참도 거짓도 아닌, 기반을 갖지 않는 문장이라고 한다. 즉 거짓말쟁이 문장과 ⑬은 참도 거짓도 아닌 기반을 갖지 않는 문장으로 진리값을 갖지 않는(truth-valueless) 문장이다. 이렇게 해서 L_4에서 거짓말쟁이 역설은 해소된다.

크립케의 형식적 설명이 일상 언어에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가적인 주장이 필요하다. 크립케의 설명을 일상 언어에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초한적(transfinite) 단계라고 부른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일상 언어의 모든 문장에 대해서, 그 문장에 진리술어를 부가하여 새로운 문장을 얻을 수 있고, 그 문장에 다시 진리술어를 부가하여 새로운 문장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 즉, ‘S’라는 일상언어의 문장에 대해서 다음을 얻을 수 있다.

(S_1) ‘S’는 참이다.
(S_2) ‘“S”는 참이다’는 참이다.
(S_3) ‘‘“S”는 참이다’ 참이다’는 참이다

‘S’가 I_0의 해석 단계에서 진리값이 부여된다면, ‘S_1’은 I_1에서 동일한 진리값이 부가될 수 있다. 일반화 하면, 이 문장들 각각은, 바로 앞문장이 이전 단계의 해석에서 진리술어의 외연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만 진리술어의 외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진리술어의 외연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문장은 항상 남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상언어에는 고정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크립케는 위와 같은 계열의 모든 문장이 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한 단계의 메타언어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12]

---

12) Kripke (1975), p. 61.

$(S_{1,A}, S_{2,A})$는 L_A의 진리술어(Tx)의 해석이라고 하자. 여기서 A는 유한하다. A가 증가함에 따라 순서쌍의 원소도 증가한다. 첫 번째 초한단계를 L_w라고 하자. $L_w = L(S_{1,w}, S_{2,w})$이고 여기서 $S_{1,w}$는 모든 $S_{1,A}$의 합집합이고, 마찬가지로 $S_{2,w}$는 모든 $S_{2,A}$의 합집합이다. L_w가 주어지면 우리는 L_{W+1}, L_{W+2} 등을 정의할 수 있다. 예컨대 A= B+1이고 $L_A = (S_{1,A}, S_{2,A})$이라고 하자. 여기서 $S_{1,A}$는 L_B의 참인 문장의 집합이고, $S_{2,A}$는 L_B의 거짓인 문장이거나 L_B의 문장이 아닌 것의 집합이다. 이제 M을 한계 기수라고 하자. 그러면 L_M은 $L(S_{1,M}, S_{2,M})$이고, 여기서 $S_{1,M}$은 $S_{1,B}$의 모든 집합의 합집합이고(B는 M보다 작다), $S_{2,M}$은 $S_{2,B}$의 모든 집합의 합집합이다. M의 단계에서 우리는 이전 단계에서 참이나 거짓으로 선언된 모든 문장의 합집합을 Tx의 외연으로 취한다. 그래서 A는 무한히 계속되지 않는 것이다. $S_{1,M} = S_{1,M+1}$이고 $S_{2,M} = S_{2,M+1}$인 M이 존재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어떤 새로운 문장도 참이나 거짓으로 주장될 수 없다.

크립케의 진리론은 타르스키 식의 언어의 위계에 의존하지 않고 의미론적 역설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크립케도 각 언어의 위계에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단계의 진리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크립케 자신도 “타르스키의 위계라는 유령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한다.[13]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제안한 위계는 타르스키의 위계 개념과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고 말한다. 타르스키의 경우, 각 언어의 진리술어는 단지 언어의 위계에서 더 낮은 단계의 언어에만 적용되고 그 위계는 무한히 계속된다. 또한 진리술어의 외연과 반외연은 각 단계에서 변한다. 그러나 크립케에게 위계는 고정점에서 끝난다. 또 L_1의 진리술어와 L_2의 진리술어의 외연과 반외연이 다르다고 해서 각 단계의 진리술어가 서로 다른

13) Kripke (1975), p. 80.

술어는 아니다. 서로 다른 외연과 반외연을 갖는 각 단계의 진리술어는 모두 최소 고정점에서 정의되는 유일한 진리술어의 특수한 경우일 뿐이다.

크립케의 진리론은 기본적으로 클린의 K3논리학에 토대한 것으로 3치논리인 셈이다. 요컨대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한 크립케의 해결은 진리값 틈새 이론(Truth-Gap theory)인 셈이다.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한 3치 논리를 통한 해결책이 직면하는 강화된 역설, 혹은 복수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크립케의 이론은 강화된 거짓말쟁이 문장(λλ)에 의해서 제기되는 복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λ)가 진리값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 문장이 기반을 갖지 않는 문장이고 진리값을 부여할 어떤 방법도 알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크립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장이 진리값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문장이 참이 아니라고 추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은 진리값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문장이 참이다”고 말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 중 하나이다. 우리가 어떤 문장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그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진리값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를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3치논리에서 ‘참’의 값 이외의의 두 값은 ‘참이다’의 반외연, 즉 ‘참이 아니다’의 외연이 되므로 결국 복수의 문제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크립케의 진리론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는 기반을 가짐/기반을 갖지 않음이라는 개념이 메타언어에 속한다는 것이다. (λ)를 의미론적으로 평가하는 다음 문장을 생각해보자.

(λ') 거짓말쟁이 문장은 진리값이 없다(truth-valueless).

크립케는 (λ')을 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형식적 이론에 따르면, (λ')이 L_i에서 참이라면, 즉

I_i(참이다) = { (λ') }

이라면,

I_{i-1}(진리값이 없다) = { (λ) }

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크립케의 이론에서 얻어질 수 없으므로, (λ')은 최소고정점에서 진리값이 부여될 수 없고, 결국 그의 이론에서 이런 문장은 메타언어의 문장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3. 모들린의 진리론

모들린은 형식적 관점에서 크립케의 최소 고정점 구성과 유사한 초완전성 견해를 유지하면서,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소할 수 있는 언어를 구성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자신이 구성하는 언어가 그 언어 자체의 메타언어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진리에 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추리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모들린은 크립케의 초완전성 견해가 복수의 문제에 부딪히고 복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되는 방안은 일종의 언어의 위계를 암암리에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언어의 위계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복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일관성 견해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들린의 의미론은 굽타(A. Gupta)가 명명하듯이, 일종의 토대론

적 의미론(foundationalist semantics)이다.[14] 그의 의미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참과 거짓은 항상 궁극적으로 세계의 상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장이 참 또는 거짓이라면, 그것은 비의미론적인 사실의 세계에 의해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경계문장(boundary sentence)이거나 적어도 하나의 경계문장과 의미론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경계문장으로부터 그것의 진리값이 결정된다.[15]

모들린에게 경계문장이란 세계의 사실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다.[16] 경계문장이 논리적 연결사에 의해서 결합된 복합문장들은 그 문장을 구성하는 경계문장을 즉각적인 의미론적 구성요소(Immediate semantic constituents, 이하 ISC)로 갖고 그 ISC에 의해서 진리값이 결정된다. 그리고 모들린은 진리술어도 하나의 논리적 연결사로 간주하여 진리술어가 포함된 문장은 경계문장으로 보지 않는다. 결국 그의 의미론을 요약하면, 경계문장, A, B는 직접적으로 경험세계의 사실에 의해서 진리값이 결정되고, A와 B가 연언적으로 결합된 문장 $(A \wedge B)$은 A와 B를, 그리고 진리술어(T)를 포함하는 문장 T(＜A＞)는 A를 각각 자신의 ISC로 갖는 복합문장이며 그러한 복합문장은 궁극적으로 그 문장의 ISC에 의해서 진리값이 결정된다. 모들린은 각각의 복합문장을 그 문장의 ISC와 연결하는 화살표를 그림으로써 한 언어의 지시도(directed graph)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17] 요컨대 지시도의

---

14) Gupta (2006), p. 722.

15) Maudlin (2004), p. 49.

16) 모들린은 경계문장이 일반적으로 의미론적인 기본값인 참, 거짓을 갖지만 모호한(vague) 술어 때문에 그 이상의 기본값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Maudlin (2004), p. 70.

17) Maudlin (2006a), p. 696.

경계에는 ISC를 갖지 않는 경계문장이 자리하고, 어떤 복합문장의 ISC 각각으로부터 그 문장으로의 화살표를 포함하는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의미론적 의존관계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begin{array}{ccc} A & & B \\ & \searrow \quad \swarrow & \\ & (A \wedge B) & \end{array} \qquad\qquad \begin{array}{c} A \\ \downarrow \\ T(\langle A \rangle) \end{array}$$

진리술어를 포함하지 않는 적형식의 문장은 지시도에서 비순환적(acyclic)으로 나타나고 모든 화살표의 역방향은 궁극적으로 경계문장에 맞닿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 의미론에 의해서 기반을 갖는 문장(grounded sentence)은 경계문장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진리값이 부여받을 수 있고, 기반을 갖지 않은 문장(ungrounded sentence)은 지시도에서 순환적으로 나타나고 경계문장에 맞닿지 않아 결국 이 의미론에서 진리값을 부여받을 수 없는 문장이다. 또한 기반을 갖지 않는 문장만을 ISC로 갖는 문장은 기반을 갖지 않은 문장으로 진리값을 부여받을 수 없는 문장이다. 모들린의 의미론은 결국 크립케의 최소고정점 구성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크립케는 최소고정점을 구성한 후, 최소고정점에서 (λ)는 '참이다'는 술어의 외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λ)는 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적 문장은 이미 메타언어에서만 표현될 수 있을 뿐이었다. 결국 크립케는 메타언어의 진리술어에 해당하는 강한 개념의 진리술어에 의존해서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 모들린은 "단 하나의 진리술어만 있을 수 있고, 만약 기반을 갖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 [진리술어가]가 서술된다면 그 결과는 기반을 갖지 않은 문장"이라고 주장한다.[18] 즉 모

들린은 메타언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크립케 이론의 심각한 결점이라고 여긴다. 그가 강조하듯이, 그의 의미론에는 “[대상] 언어와 메타언어의 구별이 없고, 자신의 진리술어를 포함하는 단 하나의 언어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19)]

모들린의 의미론에 따르면, (λ)는 참이 아니다. (물론 거짓도 아니다.) (λ)는 궁극적으로 경계문장에 맞닿아 있지 않고 지시도에서 순환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의미론을 이 주장에 적용하면, 그 주장 또한 참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의미론 자체는 [자신의 의미론에 따르면] 참이라고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참인 문장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의미론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20)] 이로부터 모들린이 부딪힌 복수의 문제는 다음 문장으로부터 발생함을 알 수 있다.

(λ") (λ)는 참이 아니다.

(λ)는 참도 거짓도 아닌 문장이다. 따라서 (λ)가 참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λ")는 참이 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모들린의 의미론에서 기반을 갖지 않은 문장만을 ISC로 갖는 문장은 역시 기반을 갖지 않은 문장이다. 그러므로 (λ")은 기반을 갖지 않은 문장이고, 따라서 참이 아니다. (λ")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될 수 없는 문장이라고 여겨진다. 모들린도 이 점을 인식하고, “거짓말쟁이 문장 (…)이 기반을 갖지 않았지만, (…) 그 문장에 참, 거짓, 기반을 갖지 않음이라는 진리값을 부여하는 문장도 또한 기반을 갖지 않았다”는 주장이 반직관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18) Maudlin (2004), p. 52.
19) Ibid., p. 154.
20) Ibid., p. 154. 강조는 모들린 자신이 한 것임.

다.[21] 이에 대해서 그는 참과 주장가능성(permissibility) 개념을 구별하여, (λ")는 참은 아니지만, 주장가능하다고 말한다.

모들린은 주장 가능성이란 참 개념과 달리 규범적 문제로 본다. 즉 어떤 문장이 참이라는 것은 비의미론적인 사실의 세계와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결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치인 반면, 어떤 문장을 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없는 조건의 문제는 언어 행위를 지배하는 규칙과 관련된 규범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모들린은 주장이라는 언어 행위를 지배하는 규칙이 만족시키기를 바라는 일련의 조건들의 집합을 아이디얼(Ideal)이라고 부른다.[22] 그가 그러한 조건 집합을 '아이디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언어 행위를 지배하는 규칙에 유익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 집합에 포함될 수 있고, 바로 그런 이유로 어떤 규칙이든 그 조건 모두를 함께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어떤 문장이 참이라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주장가능하다"는 것은 선택적인 조건일 수는 있지만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유일한 조건이 아니며, 주장가능성을 보존하는 추론규칙이 정확하게 진리를 보존하는 추론규칙과 동일하다는 요청, 다시 말해서 어떤 문장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될 때는 언제나 그 문장이 참이라고 주장하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23] 그래서 모들린에 따르면, (λ")처럼 참은 아니지만 주장가능한 문장도 있고, 거짓은 아니지만 주장가능하지 않은 문장도 있다.[24]

모들린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굽타가 지적하듯이 "거짓말쟁이

---

21) Ibid., p. 58.

22) Ibid., pp. 170~171. 여기서 모들린은 모두 7개의 조건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참인 문장은 주장가능하고 거짓인 문장은 주장을 금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누구나 항상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23) Ibid., p. 702.

24) 모들린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는 거짓은 아니지만 주장가능하지 않은 문장의 예 중 하나일 것이다.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주장해야 한다. 즉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한다."[25] 이에 대해서 모들린은 일상적으로 참인 것은 모두 주장가능하고 거짓인 것은 주장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의미론의 맥락에서 참도 거짓도 아닌 어떤 것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26] 그러나 '(λ)는 참이 아니다'는 문장이 참은 아니지만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와 다르다. 그것은 분명히 참이 아님을 알고는 있지만 주장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문제를 또 다른 그의 주장과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모들린은 T-추론의 T-도입과 T-제거 모두 타당하다고 말한다. 즉

A / T(<A>)

는 진리보존적인 타당한 추론이다. 그러나 A가 주장가능하다고 T(<A>)가 항상 주장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즉 이 추론은 진리를 보존하지만 주장가능성을 보존하지는 않는다. 그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다음 추론을 생각해보자.

(λ) / T(<λ>)

모들린은 T-도입과 T-제거는 진리보존적인 타당한 추론이라고 주장하므로 위의 추론도 타당하다. 그런데 거짓말쟁이 문장은 주장할 수 있어도, 그의 이론에 따르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 아니므로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의 추론

25) Gupta (2006), p. 723.
26) Maudlin (2006b), p. 731.

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주장가능성을 보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들린 자신이 “T(<A>)는 ‘A’의 표기상의 변형 이상이 아니다”고 말한다.[27] 그렇다면 위 표현이 지시하는 문장은 진리값이 동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두 문장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 모들린은 거의 모든 일상적인 담론은 T-도입의 추론에서 진리뿐만 아니라 주장가능성도 보존되지만 의미론적인 담론의 경우 주장가능성이 보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모들린의 의미론에는 참이 아닌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진술을 통해서 모들린의 이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들린도 자신의 이론에 참이 아닌 진술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을 주장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의 이론에 참이 아닌 진술이 있다는 주장보다 더 강하게 그의 이론에 대한 불일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모들린의 의미론에 따르면, 흔히 ‘참말쟁이 문장(Truth-teller sentence)’이라고불리는 다음의 문장도 역설을 낳는다.

(τ) 이 문장은 참이다.

모들린에 따르면, (τ)는 기반을 갖지 않은 문장이므로 참이 아니다. 즉

(τ') (τ)은 참이 아니다.

이다. 그런데 (τ)는 참이 아니고, (τ)가 가리키는 것은, T(<τ>)이

27) Maudlin (2004), p. 9.

므로, 결국 ¬T(＜τ＞), 즉 "'이 문장은 참이다'가 참이 아니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모들린의 설명에 따라 (τ')을 받아들이면, '이 문장은 참이다가 참이 아니다'라는 것이 따라 나오므로,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라는 강화된 거짓말쟁이 문장(λλ)이 따라 나오는 셈이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강화된 거짓말쟁이 문장으로부터는 역설이 도출된다. 다시 말해서 '참말쟁이 문장(τ)은 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모들린의 진리론에 따르면, 거짓말쟁이 문장뿐만 아니라 참말쟁이 문장도 역설을 낳게 된다. 물론 모들린은 위의 논변에 대해서도 참 개념과 주장가능성 개념을 구별함으로써 대답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주장가능성 개념과 참 개념의 구별은 반직관적인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 다음 두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X) 'τ'는 모들린의 지시도에서 순환적으로 표현된다.
(Y) 'τ'는 기반을 갖지 않는 문장이다.

모들린의 의미론에 따르면, (X)는 참이다. 왜냐하면 어떤 문장을 이름하는 것이 모들린의 지시도에서 순환적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은 비의미론적인 사실의 세계의 일부이고, 따라서 (X)는 사실의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고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의 값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X)의 참이 비의미론적인 세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면, (Y)는 (X)와 의미론적으로 동치이기 때문에 (Y)의 참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들린은 (Y)가 주장가능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참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그는 (X)와 (Y)가 동일한(synonymous) 문장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논리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 [(X)]는 아무런 논리적 용어도 포함하지 않는 경계문장이지만, [(Y)]는 '기반을

갖지 않는'이라는 논리적 술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동의어에 의해서 전자의 참으로부터 후장의 참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28] 어떤 문장이 다른 논리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두 문장이 의미론적으로 동치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는 짝수이다'와 '1의 계승수는 짝수이거나 3의 이전 수는 짝수이다'는 의미론적으로 동치이지만 명백하게 논리적 형식은 다르다. 그러므로 논리적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의미론적으로 동치일 수 없다는 모들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의 논리적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문장이 동치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은 의미론적 술어를 포함하지 않지만 다른 문장은 의미론적 술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차이 때문에 두 문장이 의미론적으로 동치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다음 두 문장도 의미론적으로 동치일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A) 2는 짝수이다.
(B) 2는 짝수라는 것은 참이다.

그런데 모들린의 이론에 따르더라도, (A)는 경계문장으로 참이고, (B)는 (A)를 ISC로 갖는 참인 문장이다. 즉 이 문장 모두 참이고 의미론적으로 동치이다. 그리고 모들린도 T-도입과 T-제거의 추론은 진리보존적인 타당한 추론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두 문장도 동치라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결국 의미론적 술어를 포함하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은 그 이유 때문에 의미론적 동치일 수 없다는 주장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28) Maudlin (2006b), p. 733.

4. 맺음말

지금까지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크립케의 초완전성 견해는, 그 이론이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복수의 문제에 부딪히고 크립케 자신도 인정했듯이, 초완전성 견해가 의존하지 않으려고 했던 언어의 위계라는 개념에 암암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짐을 지적했다. 모들린의 의미론의 출발은 바로 이 지점이다. 즉 그는 크립케의 초완전성 견해가 부딪히는 문제, 복수의 문제와 언어의 위계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피하면서 진리와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부합하는 초완전성 견해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모들린의 이론에 따르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 아니지만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 아니다'는 문장도 참이 아니다. 이러한 제안은 다시 복수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그는 참 개념과 주장가능성 개념을 구별하여, 그러한 복수의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 즉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 아니다'가 참은 아니지만 주장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진리 술어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일치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제안하는 방식은 그 문제 자체를 피하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설명력을 갖지 않는 미봉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참고 문헌

Field, H. (2008), *Saving Truth From Parado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upta, A. (2006), “Remarks on a Foundationalist Theory of Truth”,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73, no. 3, pp. 721-727.

Kripke, S. (1975), “Outline of a Theory of Truth”, *Journal of Philosophy*, 72, Reprinted in R. Martin (1984), pp. 53-81.

Martin, R. (1984), (ed.) *Recent Essays on Truth and the Liar Paradox*,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audlin, T. (2004), *Truth and Paradox: Solving the Riddl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audlin, T. (2006a), “Precise of *Truth and Paradox*”,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73, no. 3, pp. 696-704.

Maudlin, T. (2006b), “Replie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73, no. 3. pp. 728-739.

Van Fraassen, B. (1968), “Presupposition, Implication, and Self-reference”, *Journal of Philosophy*, 65, pp. 136-152.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Ajou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

hasong@ajou.ac.kr

Can Kripke's Theory of Truth Avoid the Revenge Problem?

Hasuk Song

This paper deals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para-completeness theory of Kripkian style can avoid the revenge problem. According to the para-completeness theory, there are some sentences that are neither true nor false. And the liar sentence is the exemplar of such sentences. But the para-completeness theory has been criticised to give rise to the revenge problem, since Kripke suggested his theory. Maudlin argues that he can construct the para-completeness theory which avoids the problem by appealing to his foundationalist semantics. The aim of this paper shows that the para-completeness theory, including Maudlin's, cannot avoid the problem. Furthermore, it is argued that Maudlin's view is *ad hoc* suggestion just to avoid the problem.

Key Words: Liar Paradox, Revenge problem, Kripke, Para-completeness, Maudlin, Foundationalist semantics